



54021 군산시 구영7길 129
전화 063.442.1166~7
이메일 gscur@daum.net

기거생이



8월호

■ 발행일 2020. 8. 25. ■ 기획·편집 김기은 · 인소영 ■ 발행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 혁신도시 군산

도시재생과 건축자산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송석기 센터장

군산의 도시재생사업이 갖는 큰 특징 중 하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건축물을 건축자산으로 적극적으로 보존, 활용하는 데에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내항의 일제강점기 은행 건축물을 활용한 사례에서부터 월명동의 주택 건축물을 활용한 사례까지 그 선례는 다양합니다.

수십년 동안 시간의 쉼이 쌓여 만들어진 건축자산의 독특한 분위기와 형상은 신축 건물에서는 전혀 흉내낼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예쁘게 멋을 낸 건축물은 다른 대도시에서 흉내낼 수 없는 시간이 만든 건축자산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해왔고 익숙해져서 그 가치가 보이지 않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진짜 보물이 그 곳에 있습니다.

그 보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도시재생의 출발점입니다.

재생 알림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제11조)

●위치



●활용

센터 2층 로비에 도시재생사업 안내 및 홍보책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야”

8월 5일 해신동 주민센터에서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군산시는 50여 명의 주민과 지역 시·도의회를 비롯해 수산진흥과 등 관계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전반적인 활성화 계획을 설명했다. 해산물 가공센터 조성 등 기반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들은 사업시설의 적정한 위치 선정, 해안선을 활용한 사업, 폐철도 활용, 이벤트 광장의 용도 등 사업 건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기만 도시재생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이후 첫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민·관이

합심해서 해신동 사업을 잘 추진해 가자.”고 당부했다.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은 ‘해산물의 맛과 근대문화의 멋이 함께 하는 해신도시, 군산’을 만들어 나갈 활성화 사업을 2024년까지 추진한다. 특히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사업종료 후 주민 스스로 지역 재생을 이끌어갈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기평 센터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먼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달라.”고 말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동

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사업 (중심시가지형)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문병일 팀장



사업 소개 순서

- 1화 수협창고 리모델링
- 2화 도시공원조성
- 3화 청년(창업)센터 조성사업
- 4화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안심보행길 조성
- 5화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공모사업

2화 / 도시공원조성

군산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중심시가지형) 계획 미중물 사업 중 금암동 73-201번지 일원 신영시장 인근 한화공장 및 폐철도부지를 부처협업 살림청 연계사업으로 8,754㎡(2,677평)에 2019년 11월 착공, 2020년 3월 준공, 도시재생숲을 조성완료 하였다.

신영시장 인근 한화공장 및 폐철도부지 ▶ 도시재생숲 조성

본 사업은 가든존, 피크닉존, 포레스트존, 다이나믹존 등 테마별로 어울리는 대왕참나무 외 15종 9만여본의 수목을 식재해 숲을 조성하고 파고라, 야외테이블 등 편의시설과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시민이 기증한 8,400만원 상당의 적피배롱나무, 황금금솔 등 특이수목을 산책로변에 식재하였으며, 폐철도변 길에는 꽃무릇 등 16여종의 계절별로 다양한 꽃피는 자생화를 식재하여 벌써부터 주변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어 주민들의 새로운 운동공간, 힐링 공간으로 활용 되고 있다. 추후 공모사업 등을 통해 더 많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함께 알아가요!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자료 참조, 문화재청(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지원체계구축 2018

문화재청은 2018년에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장미동 일원/152,476㎡)」을 문화재로 고시했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근대 시기에 형성된 거리, 마을, 경관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말한다.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은 1899년 대한제국 개항 이후 초기 군산항의 모습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의 아픈 역사와 근대산업화 시기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시설과 흔적들이 잘 남아 있어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공간 내에 있는 뜬다리 부두(부잔교, 浮殘橋), 호안(항만 석축구조물), 철도와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창고,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 탱크 등 5개 핵심 시설과 건축물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또한, 인근에는 대한제국 개항기에 건립한 「구 군산세관 본관」과 일제강점기 경제·상업적 수탈을 위해 들어선 「구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 그리고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이 있는데 이와 연계할 경우 역사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상승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도시재생사업 월명동

제3회 손편지쓰기대회 시상식

‘코로나19 극복’에 애쓰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전하는 제3회 손편지쓰기대회 시상식이 8월 7일 군산우체국 4층 교육장에서 있었다.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3회 손편지쓰기대회에서 지도교사 포함 초등부 12명, 중등부 12명, 일반부 5명이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배학서 회장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준비한 손편지축제가 호우경보로 인해 취소되어 무척 안타깝다.”고 전하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영 군산우체국장은 “지역주민들이 손편지를 주제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축제를 열고, 손편지쓰기대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전국에 없는 일이다.”며 “우체통거리의 손편지쓰기대회가 전



국적인 대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공모된 손편지는 ‘코로나19 극복’에 애쓰시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전달된다고 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동용 도의원, 배형원·박광일·송미숙 시의원과 월명동장, 도시재생과장 등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고, 대회를 개최한 우체통거리경관협정 운영회를 응원했다. 참여한 수상자와 가족들은 시상식을 마치고 우체통거리와 홍보관을 돌아보며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주민공모사업
홍남동

‘미원광장 마을관리소’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홍남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박춘남 회장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호우경보 등으로 잔뜩 긴장해야 했던 여름입니다. 아무쪼록 무탈한 날들만 계속되기 바랍니다.

홍남동 미원광장일대가 소규모도시재생을 추진했습니다. 도시재생이 뭔지 몰랐는데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알 것 같고, 그래서 아쉽고 주민들은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원광장 마을관리소’를 주민협의체 회비로 마련했습니다. 처음에 낯은 컨테이너를 보고 주민협의체 회원들도 ‘저게 뭐야’하는 반응이었지만 주민공모사업 목공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손수 거점지 준비를 하고 꼴을 갖춰가게 되니 이제는 “나

무 그늘 밑에 평상도 만들어 놓자, 중고물품도 모아 팔아서 꽃도 심고, 마을 환경정비도 하자.”고 즐거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소식 날에 야심장터도 엽니다. 원래 계획은 시원한 가을밤에 조명을 예쁘게 켜고 장터를 열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될까봐 흰한 여름밤에 조심스럽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원광장 마을관리소’ 개소식 및 야심장터 안내

일 시 : 2020. 9.11. (금) 16:00~(본행사 17:00~)

장 소 : 미원광장 일대

야심장터 참여 문의 : 063-442-1167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코로나19 또는 천재지변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시요상가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는 건물주님들!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준호 사무국장



중앙로는 1910년의 군산부 개설 이래 1990년대까지 구 역전에서 해방굴에 이르는 도로로, 군산시 시가지 중심의 주요 도로 역할을 했다. 시청과 경찰서 등이 있었으나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우체국만 남았다. 1990년대까지 군산시의 경제와 금융,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으나 나운동과 수송동, 미장동, 조촌동으로 도시기능이 점차 옮겨가면서 유통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상권은 바닥을 쳤다.

군산초교에서 구경찰서까지 거리는 그리 길지 않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오시요거리주 민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하나둘 상가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임의단체 설립을 시작으로 재미있는 거리 만들기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하고, 6월 가로환경정비사업에 주민제안사업으로 공모신청이 되었다. 지금은 설계디자인을 꼼꼼히 진행하고 있고, 실행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사무소를 오픈했다. 재미있는 오시요거리 만들기 프로젝트 현장사무소는 W상가 건물주 조성덕사장님이 5개월동안 무상으로 임대해 주셨다. 이상훈 총감독이 상주를 시작했고, 오시요거리의 중요한 소통의 공간이 되리라 본다. 사실 오시요거리 활성화를 위해 빈상가를 무상임대 해주신 분은 1호가 따로 있다. 간지사장님이시자 오시요거리 주민공동체 김용민대표이다. 간지 3층에는 현재, 문떡토리 문태현대표가 스토리마켓을 준비하기 위해 무상임대 조건으로 들어와 있고, 한옥떡갈비 2층도 군산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군산 사회적 생태계 조사 사업을 위해 9월부터 4개월간 임차할 예정에 있다. 오시요거리 활성화를 위해 쉽지 않은 통 큰 결단을 해준 ‘함께하는 건물주님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세대간의 교류 홍남동 보물찾기

홍남동 보물찾기는 미원경로당 어르신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지지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2019년 홍남동 소규모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



에 ‘어르신과 학생, 세대간 결연으로 빛나는 문화공감’ 사업이 선정돼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의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리 형성된 정서적인 관계가 2020년 주민공모사업으로 ‘홍남동 보물찾기’를 진행하는데 무척 순조로웠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의 댁을 방문해 여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생활소품들로 보이지만 어르신들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긴 오브제를 발굴

가 있는 작품으로 변화시키면서 미원동을 잘 이해하고 더욱 친밀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원동만의 콘텐츠(마을지도, 보물책자)를 제작했습니다.

9월 11일(금) 오후 4시 어르신공동체가 주최하는 ‘미원광장 마을관리소’ 개소식, ‘야심장터’ 행사와 함께 결과물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술공감 채움 고보연 대표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구술, 녹취, 질문 등을 통해 얻고 사진, 그림, 글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미원동 어르신들의 생활소품을 특별한 예술적·문화적 가치

도시재생뉴딜사업 산북동

휴식처가 된 쌈지공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장전·해이마을 2곳에 쌈지공원이 조성됐다. 쌈지공원은 모두 마을경로당 가까이에 조성돼 마을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다. 마을 주민들은 농사일을 하는 도중에 쌈지공원으로 와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담소

를 나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이 문을 닫을 때마다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소중한 장소이기도 하다. 산북동 장전·해이 마을은 군산시 도시재생 뉴딜 주거지지원형 사업지역이다.

사진촬영 산북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고석범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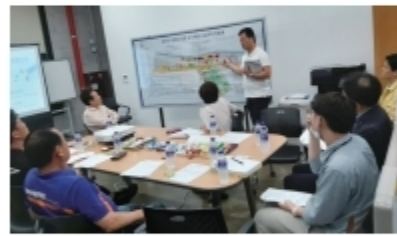
군산 도시재생 소식

2020. 7. 23. ~ 8. 15.



2020. 7. 23. 목요일

삼학동 주민역량강화교육
삼학사랑경로당



2020. 7. 23. 목요일

패보선창 선박수리업
공동체 회의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0. 7. 29. 수요일

공동협력 업무협약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군산시도시
재생지원센터



2020. 7. 29. 수요일

우체통거리 꽃향기 공방 방문
도시재생지원센터



2020. 7. 30. 목요일

군산시 마을기업육성 주민역량강화
교육
로컬라이즈카페



2020. 7. 30. 목요일

패보선창번영회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
전북경제동상진흥원



2020. 8. 5. 수요일

재미있는 오시요거리 만들기 프로젝트
주민회의
오시요거리 주민공동체



2020. 8. 5. 수요일

홍남동 조형물설치 디자인
주민과의 협의
미원광장



2020. 8. 7. 수요일

청년공감라운드테이블
해신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0. 8. 10. 월요일

패보선창번영회 주민회의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0. 8. 12. 수요일

'우리동네 아름다운 가로경관만들기사업 설명회
홍남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 건축경관과
& 홍남동주민센터 & 도시재생과



2020. 8. 12. 수요일

우체통거리경관협정운영회 주민회의
우체통거리 홍보관



2020. 8. 13. 목요일

해신동 주민협의체 간담회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0. 8. 13. 목요일

장미동 주민공동사업 추진방향 논의
오시요거리 주민공동체



2020. 8. 14. 금요일

홍남동 목공교육을 통한 거점지
정비
미원광장 마을관리소



2020. 8. 14.~15. 금~토요일

도시재생광장마켓
군산공예협동조합&문화기획명비재

제1기 군산시 도시재생 주민기자단 모집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골목스토리 발굴,
마을행사, 마을주민의
감동 스토리, 도시재생
주민참여 현황 등을 취재할
주민기자를 모집합니다.

- 대 상**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으며 생활권이 도시재생사업지역 또는 도시재생 사업예정지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기준) 주민
- 대상지역** 월명동, 중앙동, 해신동, 소룡동, 산북동, 홍남동 등
- 모집일정** • 수시모집
- 지원방법** 센터방문 및 현장 접수
• 센터 : 전북 군산시 구영7길 129 (영화동)
• 현장 :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 현장지원센터 접수
- 활동내용** • 도시재생 관련 기사작성
- 활동혜택** • 기자교육 기회 부여
•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재생이'에 우수 기사 게재
※도시재생 주민기자 활동은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원고료·활동비 등 어떠한 비용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문의** 063) 442-1166

도시재생 뉴딜사업

군산도시재생지원센터

가 14억원을 연리 1.5%로 빌려줄까요?

공공주택사업 조성사업이 궁금하십니까?
문의 : 1588-9008

주최도시재생
nhu.molit.go.kr